

밝혀지는 植物資源(VI)

李 昌 福

Plant Resources Discovered (VI)

Tchang Bok Lee

The author collected *Apocynum sibiricum* Jaquin from the top of a sand piles in the midst of the Han River, near Yoido, Seoul, which is a new addition to our flora. *Apocynum lancifolium* is the only taxon known so far of the same genus in Korea. It seems to be infiltrated throug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it has long been planted as an ornamental source. It fruits nicely and seems to like sandy site along the river. *Lasianthus japonicus* was found from the southern foot of the Mt. Halla by Mr. J. D. Park, which is a new genus to our flora. It is very similar to the member of the genus *Damnacanthus* except thornless twig, 5-merous flower parts, sky blue fruit, and smoothed root. From the same locality mentioned above, *Vaccinium bracteatum* var. *lanceolatum* Nakai was found, which locality has not been known so far for us in Korea.

A new form of *Lespedeza cyrtobotrya* for. *alba* has been produced during cultivation of for. *semialba* at our arboretum, type tree of which was transplanted from Kangwondo in 1965. The seed of for. *semialba* produced pure white and semiwhite though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find pure white forms in the field. Morphological appearance is not different from the basic species or other forms. *Ambrosia trifida* L. infiltrated to the western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le it's form for. *integrifolia* Fernald was found near Chooncheon, Kangwon-do. The author found *Platycodon grandiflorum* for. *duplex* Makino from the summit of the Mt. Joge. and *Quercus dentata* for. *pinnatifida* Rehder from a small island. "Nangsae Island", Cheollipo, Choongcheongnam-do during 1976 and 1977. The latter taxon was an addition to our flora.

A new taxon, *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was disclosed from the volcanic basin of the Mt. Halla. It appears to be very similar to *Y. sonchifolia* but much branched and deminished, which height when fruiting attains 5~12 cm. Leaves are similar to the basic species except incised margin with reflexed edges. Since a new taxon, *Youngia koidzumiana* Kitamura was named it brought much confusion with *Y. chelidoniifolia*. In the fall of 1976 the author noticed many intermediate forms of *Y. chelidoniifolia* and *Y. denticulata* for. *pinnatifida*, some of those approach to the former species and some to the latter taxon. *Y. koidzumiana* was named to that of intermediate form. Therefore it will hard to stand as a distinct species but a hybrid. It grows at the Mts. Jiri, Dokyu as well as in the area of Kwangnung, Kyunggi-do.

Ulmus macrocarpa was thought to be very hard to get germinated since I collected it at first from a southern limit, Lake Paroho, Kangwondo on the 24th

May 1966. Fortunately it fruited well and germinated perfectly at the our arboretum. Therefore brought a doubt on the *U. macrophylla* Nakai while our observations continued on it. According to the original description of *U. macrophylla*, Nakai had not chanced to see any fruit of it while late T. H. Chung illustrated it's samara in his Flora Koreana though he also mentioned no flowers seen.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illustration of samara came from his imagination. On the other hand *U. macrocarpa* collected from the Lake Paroho does not go with descriptions known so far. It differs especially not only size of the leaves on the sterile shoot but also even those of fruiting branches, such as they are much larger than those known. I have not chanced to read original description or to see type specimen. If Rehder's explanation on this taxon goes well with the type specimen of it, the specimens collected from the Lake Paroho must put under the name of *U. macrophylla*. From the results made through our observation the latter is nothing different from *U. macrocarpa* except larger size of the leaf as well as slightly larger size of the samara, such as 2~3 cm long instead of 2~2.5cm long known. Therefore *U. macrophylla* will hard to stand as a species level but as its variety though it requires through study in compare with typical *U. macrocarpa*.

Ulmus macrocarpa var. *macrophylla*, grad. nov.

Ulmus macrophylla Nakai, Fl. Sylv. Kor. 19, 15(1932) et Synopt. Sketch Kor. Fl. 42(1952); Uyeki, Woody Pl. 23(1940); Kawamoto, Ill. For. Pl. 164(1943); T. Lee. Arb. Kor 60(1947), Ill. Woody Pl. (1969) et Bull. Kwanak Arb. no. 1, 23(1976); T. Chung, Kor, Fl. 1, 119 f. 238 (1957).

Lespedeza cyrtobotrya for. *alba*, for. nov.

Flora alba cetera ut typica

Typus; no. 1761-1, Herb. Coll. Agr. S.N.U.

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var. nov.

Similat in forma cum *Y. sonchifolia* et *Y. denticulata* sed recedit a priori multo minor, capitula nutantia, achenia latiora et breve rostrata, posteriori folia incisa mit mucronulato-dentata.

Herba biennis, caulis 5~12cm altus, ramosus, ramis divaricato-ascendentibus, Folia radicalia sub anthesi viva aut semiemarcida, oblonga, margine incisa et mucronulatodentata, leviter revoluta. Folia caulina 3.5 cm longa, plus minus 1 cm lata, margine irregulariter incisa et revoluta, basi semi-amplexicaulia, supra viridia scabra. Involucrum calculatum, anguste tubulosum, 6 mm longum, medio 2 mm latum in sicco. Squamae biseriales, exteriores 4~6 in numero, 0.5mm longae, interiores 8 in numero, 6 mm longae, glabrae basi incrassato-carinata. Achenia nigra fusiformia 11~12 in numero, 3 mm longa, 0.7mm lata basi contracta apice brevirostra. longitudinaliter 10 costulata, costis leviter inaequalibus minute setulosa. Papus albus vel albescens, 3 mm longus, setis sigilatim caducis minute scabris cetera ut typica.

Typus; 3626-1, Herb. Coll. Agr. S.N.U

Youngia x *koidzumiana* Kitamura, st. nov.

Youngia koidzumiana Kitamura, Acta Phytot-Geobot. 11, 127 (1942), pro

species ; T. Lee, Bull. Kwanak Arb. no. 1, 107(1976).

水宮草(*Apocynum sibiricum* Jaquin)

1976年 여름철 어느날 校內體育大會가 있어 準備運動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 며칠후면 林學科卒業班과 같이 智異山實習에 參加하여야 하겠기에 汝矣島 옆의 漢江 白砂場을 오르내리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여귀, 소리쟁이, 개피, 명아주 그리고 참새귀리 등이 여기저기 茂盛한 가운데 때로는 興味를 끌만한 식물들이 발견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漢江은 江이라기 보다 探砂의 뒷처리를 하지 않은 탓으로 그 數를 알아보기 어려울만큼의 물웅덩이와 자갈더미가 散在하여 늘지대 같이 보였다. 물가에 따라 茂盛한 개여귀는 낮은 모래더미를 완전히 덮었으며 마치 여귀발같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물웅덩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신을 벗어두고 도착한 곳은 작은 섬처럼 생긴 자갈더미였다. 자갈더미는 길이 15 m, 나비 5 m 정도로서 가장 높은 곳은 물에서 1.5 m 내외쯤 되고 자갈 틈에 모래와 다소의 흙이 박혀서 地盤이 굳게 다져진 곳이다. 물이 닿는 곳에는 개여귀, 물썩이 우저지고 개피와 개밀 그리고 몇 포기 소리쟁이가 보였다. 자갈더미의 윗면은 풀이 자라지 못하고 그 中央에 지름 2 m 정도쯤 자리잡은 灰青色植物의 적은 群叢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Apocynum*屬의 未知種이었다. 꽃도 열매도 볼 수 있는 훌륭한 표본이었다.

*Apocynum*은 아시아, 구라과 南部 및 北美에서 25종이 報告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개정향풀이 忠北 丹陽 근처의 漢江 가의 砂地에서 자라고 북쪽으로는 西海岸을 따라 장산곶 근처와 鎮南浦等 海片: 가까이 자라고 있다. 毒性이 있는 植物이므로 漢藥材로서의 可能性도 있지만 觀賞的價値가 인정된 植物이다. 이번에 발견된 식물은 *Apocynum sibiricum* Jaquin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타났고 美國에서는 一部 觀賞植物로 심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식물은 美國과의 往來가 빈번해짐에 따라 묻어왔거나 갖어온 것에서 번져났을 것이다. 種子는 긴털이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다른 物體에 붙어가기도 하지만 한강에서 자라는 것은 洪水때에 떠 내려가다가 걸려서 자라기 시작 하였을 것이다. 자갈더미는 洪水 때에는 물에 잠기기 때문에 모래와 더불어 흙이 채여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 냇가에서 자라는 점으로 보아 環境的인 水分要素가 많이 필요한 듯하지만 자갈밭에서 茂盛하는 점은 砂丘植物로서 훌륭한 資源의 하나인듯 하다. 길은 灰青色과 더불어 다복하게 群生되는 점이 觀賞價値를 높여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중 本植物과 關聯이 있는 種類는 정향 및 개정향이라는 식물뿐이므로 이와는 달리 물 가운데 혼자 떨어진 작은 섬같은데서 자라는 모습을 취하여 水宮草란 이름을 부쳐서 발표한다.

무주나무(*Lasianthus japonicus* Miquel)

漢峯山 남쪽 山麓 한란 自生地 근처의 常綠樹林에서 朴正德先生이 처음 採集하여 보내왔다. 수정목(*Damnacanthus*) 비슷하게 생겼으나 작은 표본으로는 알수가 없어서 뿌리와 더

불어 열매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무주나무속(Lasianthus)이었다. 작은 常綠灌木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수정목 비슷하지만 뿌리가 念珠狀으로 되지 않으며 열매의 색깔이 하늘색인 점과 가시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뿌리의 特色을 취하여 무주나무(無珠木)라고 이름을 지어 발표한다.

Lasianthus는 100餘種이 주로 아시아의 熱帶地方에서 자라며 若干은 東亞地域, 호주, 큐바 및 아프리카 西部에 퍼졌다. Damnacanthus와는 꽃이 5數이고 가시가 없는 점이 다르다. 무주나무는 日本의 南部에서 류큐, 대만을 거쳐 中國南部까지 分布되며 제주도의 것이 이의 北限線이 될 것이다.

긴잎모새나무(Vaccinium bracteatum var. lanceolatum Nakai)

한라산 남쪽 山麓에서 朴正德先生이 採集하여 보내왔다. 모새나무와 다른 것은 잎이 보다 길고(4~8cm) 열매가 보다 크다. 일본인 大井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남쪽에서 자란다고 하였으나 그 正體를 알 길이 없어 只今까지 疎外 되었으나 이번의 確認으로서 그 眞相이 들어났기에 이를 追加한다. 열매는 먹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열매의 크기에 대한 注目이 요구되는 식물자원이다.

선녀참싸리(Lespedeza cyrtobotrya for. alba T. Lee)

1965年 大關嶺 근처의 黃柄山麓의 냇가에서 자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꽃빛은 희지만 多少 분홍색이 돌기에 흰참싸리(for. semialba)로 발표함과 동시에 계속 採種을 하여 심어오던중 純白色이 나타났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냇가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이므로 냇가에서 沐浴을 하다가 俗世로 떨어지게 된 傳說中の 仙女와 같은 모습이어서 선녀참싸리란 이름을 붙였다. 흰참싸리의 種子에서 자라는 것 중에는 흰참싸리와 선녀참싸리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現狀은 흰참싸리가 참싸리와 선녀참싸리와의 雜種인듯이도 보이지만 이는 앞으로 규명될 문제이다.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L.)

1975年 西部戰線의 前方地帶를 지나다가 길가에서 발견 하였다. 잎꼴 보기에 해바라기 비슷하지만 끝이 3개로 갈라진 점이 다르고 꽃이 피면 돼지풀같은 꽃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美國의 Quebeck에서 남쪽 Florida까지 퍼져있는 雜草이므로 軍需物資에 붙어서 들어왔을 것이다. 돼지풀과 마찬가지로 花粉病을 이트키는 종류이며 많은 種子를 생산하여 繁殖力이 強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청 된다. 잎의 윗부분이 3개로 갈라졌기에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지만 잎이 전연 갈라지지 않는 종류가 있다. 이것을 둥근잎돼지풀(for. integrifolia Fern.)이라고 하며 정헌배와 이우철 교수가 江原道 春川으로 가는 登仙瀑布 근처의 中島里에서 자라고 있다는 事實을 밝혔다. 中島里의 岩隙에서는 긴잎조팝나무가 자란다는 사실도 발표하였는데 주목할만한 事實이었다.

겹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for. duplex Makino)

1976年 8月 曹溪山學術調査時 仙岩寺의 뒷 溪谷을 타고 山頂 草原에 올랐을 때 풀밭에서 발견 되었다. 風衝地帶에 발달한 草原에 별다른 식물이 보이지 않기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키물같은 도라지가 있기에 살펴보니 여기저기 몇 포기 가 자라고 있었다. 이미 알려진 종류이지만 山地에서는 처음이기에 이를 발표한다.

한라고들빼기(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T. Lee)

한라산 白鹿潭 근처에서 자란다. 고들빼기와 비슷하지만 높이 5~12 cm로서 밑에서 많이 갈라져서 여러 대가 나오고 돌기같은 털이 密生 또는 疎生한다. 잎은 基本種과 같으나 줄기 밑에 날린 것은 길이 3.5 cm, 나비 1 cm內外로서 가장자리는 不規則하게 欠刻狀이고 가장자리가 뒤로 말리며 톱니끝이 날카롭다. 總苞는 筒狀이고 길이 6 mm, 지름 2 mm이다. 苞片은 2줄로 배열하고 外片은 4~6개이며 길이 0.5 mm정도이고 內片은 8개로서 길이 6.2mm이며 털이 없다. 瘦果는 11~12개씩이며 紡錘形이고 검은색이며 길이 3 mm, 지름 0.7 mm로서 10개의 稜線이 있다. 능선상은 잔돌기가 있어 거칠다. 冠毛는 白色 또는 汚白色이며 길이 3 mm 정도로서 떨어지고 까칠까칠하다.

고들빼기와 비슷하며 한라산에서 자라므로 한라고들빼기라고 한다.

지이고들빼기(Youngia × koidzumiana Kitagawa)

1942년에 발표된 以來 그 正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중 1976年 智異山의 天皇峯과 碧得嶺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이를 발표한다.

강화이고들빼기와 까치고들빼기의 中間形이며 잎은 前者보다 後者에 가까운 것이 많으며 곳에 따라서는 後者와의 구별이 곤란한 것도 있지만 前者와의 구별이 어려운 것도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곳이 있다.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은 兩者의 中間形이며 本群의 基準標本이 이에 속하고 筆者가 1965년 9月 7日 光陵 근처의 천마산에서 채집한 것(no. 6973) 1966年 9月 16日 덕유산에서 채집한 것(no. 8866)은 이와 거의 一致한다. 즉 外觀上으로는 까치고들빼기 비슷하지만 보다 크고 葉底의 裂片은 커다란 托葉 같으며 가장자리가 갈라진다. 그리고 裂片은 보다 넓고 羽狀으로 갈라지거나 톱니처럼 갈라지고 밑부분이 좁아지지만 小葉柄 같이 가늘어지지 않는다. 瘦果는 까치고들빼기처럼 上部의 稜線에 털같은 突起가 있으며 이고들빼기와 같이 잔 突起가 均一하게 分布 되지 않는다.

깃땃갈(Quercus dentata for. pinnatiloba (Fr. et Sav.) Rehder)

千里浦의 낭세섬에서 자란다. 곰솔이 우거진 밑에 떡갈나무와 참피나무의 萌芽가 자라고 있는데 간혹 잎이 깃 모양으로 갈라진 것이 있다. 잎이 갈라지는 길이는 나무에 따라 가지에 따라 變異가 甚하며 한쪽 가지의 잎은 깃모양으로 갈라졌으나 다른 가지의 것은 正常的

인 잎이 달린 것도 있었다. 寫眞과 같은 표본을 채취한 나무를 관찰한바 이와같은 잎이 다시 자라지 않았다. 따라서 變種이라기 보다는 品種으로 取扱할 성질의 것이라고 믿는다. 日本에서는 일찍 발표된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타났다. 잎이 깃처럼 갈라지므로 깃떡갈나무라고 한다.

왕느릅나무 *Ulmus macrocarpa* Hance의 南限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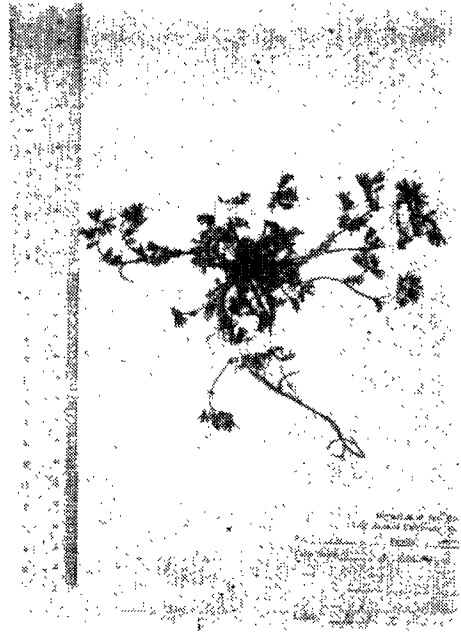
1966年 5月 24日 華川發電所 뒤의 湖畔에서 結實된 커다란 왕느릅나무를 발견하였다. 當時에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한 그루뿐이었고 비슷한 나무들은 많이 자라고 있었으며 돌뿔나무의 老木도 한그루 있었다. 1977年 같은 날 다시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을 찾았다. 이번에는 結實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큰잎 느릅나무와의 差異에 疑問點이 있다. 왕느릅나무의 잎크기는 길이 5~16cm, 나비 3~10.5cm로서 記載上으로 본 큰잎느릅나무의 잎은 길이 7~18cm, 나비 5~9cm에 비해 손색이 없다. 뿐만아니라 큰잎느릅나무는 열매가 달리지 않은 가지의 잎을 測定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葉柄은 길이 3~11mm로서 6mm 정도가 보통이며 찌그러진 葉底 때문에 葉柄의 길이도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다소 털이 있다. 큰잎느릅나무의 葉柄에도 잎의 뒷면과 더불어 털이 있다. 한국산림식물도설에는 느릅나무와 같은 열매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 식물도감(238p.)에도 있다. 記載上으로는 상상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열매가 사실이라면 왕느릅나무와 전연 다르다고 보겠지만 표본이나 記載上으로는 왕느릅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큰잎느릅나무는 왕느릅나무와 같은 種이며 열매가 달리지 않은 개체에서 採取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왕느릅나무의 記載에 있어서 잎의 길이가 3-7cm라고 하면(Rehder 176p) 華川地域의 것은 왕느릅나무의 變種(var. *macrophylla*)에 속할 성질의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研究할 여지가 있으며 그 주변의 植生은 다음과 같다.

轉石地에 散在한 왕느릅나무 중에서 가장 큰것은 높이 15cm, 가슴높이의 지름 25cm 정도이며 그 옆에 돌뿔나무 (*Morus tiliaefolia*)의 老木도 한 그루 있고 갈참나무, 찰피나무, 산딸나무, 소태나무, 물푸레나무 및 물박달과 더불어 上層을 차지한다. 고평나무, 생강나무, 광대싸리, 불나무, 갈매나무, 박총나무, 붉은병꽃과 두릅나무가 다음 層을 차지하고 박쥐나무가 그늘에서 자라며 空地의 岩面은 담쟁이덩굴이 덮고 할미밀망, 다래덩굴 및 개머루가 이리저리 엉키는 가장자리에 싸리, 더위지기 및 산딸기가 자리를 잡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草本類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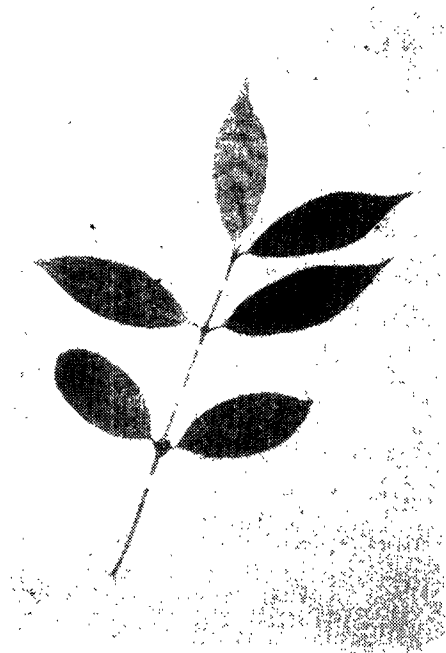
덤불쑥, 길신나물, 누런내풀, 좁은잎쑥기풀, 닭의장풀, 덩굴닭의장풀, 신감채, 산층층이, 배초향, 주름조개풀, 나도바랭이, 새, 실새, 기름새, 마, 머누리배꼽, 산과불주머니, 이고들빼기, 느삼, 맨무, 꼭두선이, 도둑놈의 갈고리, 황고사리, 개고사리, 큰개별꽃, 알록제비꽃, 까치발 및 마타리, 까치깨.



저이고들빼기 *Youngia koidzumiana*



한라고들빼기 *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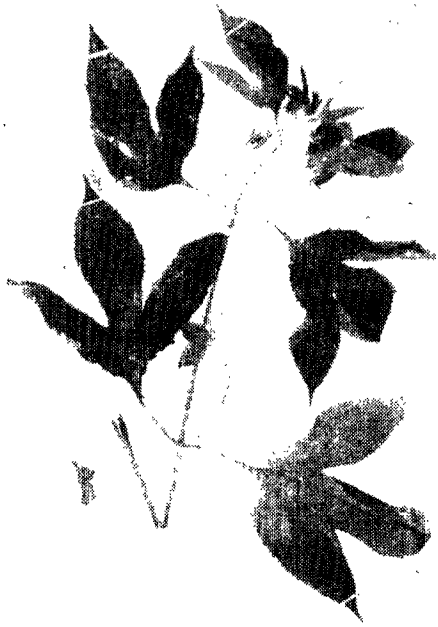
무주나무 *Lasianthus japonicus*



왕느릅 *Ulmus macrocarpa*



水宮草 *Apocynum sibiricum*



단풍왜지풀 *Ambrosia trifida* L.



깃떡갈나무 *Quercus dentata* var. *pinnatiloba*